

시·도 교육연구정보원장 전주에 집결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시·도 교육연구정보원장 협의회'... AI·SW교육 사업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4~25일 시청각실 및 라향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연구정보원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시도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SW교육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전북미래교육연구원 우수 사례 소개와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초청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특강이 펼쳐진다.

25일에는 소리의 고장 전북에서 '판소리 한 소절 배우기'를 통해 한국적인 문화의 가치와 지위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전국 시

도 교육연구정보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익 원장은 "전북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가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공유는 물론,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공립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 6.2대 1

사립은 3.2대 1 경쟁률

2025학년도 도내 공립 중등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이 6.2대 1로 나타났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 중등교사 교사는 372명 모집에 2,300명이 지원해 6.2대 1의 경쟁률(전년도 7.2대 1)을, 사립만 지원한 중등학교 교사는 207명 모집에 654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공·사립은 579명 모집에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립에서는 가정과목이 8명 모집에 85명이 지원해 10.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전문상담(21명 선발) 10.0대 1, 사서(6명 선발) 9.5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사립에서는 삼전학원 전문상담과목이 1명 모집에 87명이 지원해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15일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중등임용시험 게시판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17일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 '열대식물 특성 활용 도시 가로환경 개선' 시연회가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열대식물 특성 활용 도시 가로환경 개선

전북대, 열대식물 가로화단 화분·식물임대 시연회

'열대식물 가로화단, 화분 및 식물 임대사업'이 도시환경 개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열대식물의 특성을 활용해 도시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또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식물 임대 사업은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구독 형태로 식물을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업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가로화단 및 화분을 조성하고, 유지 및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관리 서비스는 보식, 보비, 전정 등 정기적인 관리를 포함하며, 고객은 월별 구독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비

스를 이용한다.

이 사업의 핵심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서정남 연구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국 기후에 적합한 열대식물을 선정,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화단 조성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지난 17일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 열린 시연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양한 열대식물의 배치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강원대학교의 교수들과 식물임대업체, 일반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식물 임대 사업의 장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역사문화관에 세계한인무역협회 기증으로 만들어진 세계발효전통주 전시실 'MANNA'가 개관된 가운데,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무역협회 기증' 세계발효전통주 전시실 개관

전주대, 임실치즈테마파크 역사문화관에... "의미 있는 협업·교류의 가교 역할"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역사문화관에 세계한인무역협회 기증으로 만들어진 세계발효전통주 전시실 'MANNA'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명사와 전통문화유산 위에 재외동포 사업가들의 아나스포라 향수가 더해져 세계적인 문화관광 자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71개국 7,000여명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의 마음이 전주대와 전북문화관광재단 협력체에

전달됐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 역사문화관은 한국에서 처음 발효치즈 생산을 시작해 임실군의 경제부가가치를 높인 벨기에 출신 지정왕 신부님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 공간에 재외동포 사업가들의 기증주 전시실이 만들어져 글로벌한 영향력으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징적 공간이 됐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교류가 단순한 기증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세계한인

무역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의 기성 사업가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주대학교가 의미 있는 협업과 교류의 가교가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와 임실군은 RISE 기반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고교-대학 연계

2학기 주말 강좌 개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9일 고교-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 2학기 주말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주말 강좌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생 중심 진로 전공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학생 중심 진로 전공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전문 강좌는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초등교육과(대표교수 최병연)에서 운영하며, 수업은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5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주말에도 시간을 할애하며 본인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고교-대학 연계 주말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의 심화 강좌를 듣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 "교무·학사 분야 감사, 지적 위한 것"

전북교육청 "지원·예방 중심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무·학사 분야 감사에 대해 "지적을 위한 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서도 교무·학사를 포함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3년 주기로 교무·학사 감사가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처분에 의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며 한 학교에서 15명의 교사에게 무더기 감사처분을 내린 것은 지적을 위한 감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재무감사는 도내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교무·학사 감사는 평균 1교당 약 40년 주기로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적정한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업,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의 분야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종합감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무·학사분야 감사는 적발·처분 감사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의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 쌀요리 경연대회 '금메달'

전주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는 지난 19일 진행된 '2024 전국 청년 쌀요리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창의적 쌀 요리 아이디어 발굴, 청년 쌀 요리 전문가 육성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쌀 소비 촉진을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2인 1조)이 경합을 벌였다.

이에 따르면 금메달을 수상한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 전문이?여은지 학생은 쌀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새로운 메뉴 개발에 관심을 갖고 개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메뉴 개발을 실행하고 맛과 기호도를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대희 학과장은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들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경험을 쌓고 실무 감각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 그 결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외식산업조리학과 교수진은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계약업무, 손쉽게 해결'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실무편람' 발간 사업 계획 수립부터 대금 지급까지 '총망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약실무편람을 발간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계약업무 개선 방안 16개 항목을 마련해 알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계약실무편람 제작에 나섰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전북교육청 재무과 계약팀을 주축으로 13명의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본인의 업무로 바쁜 상

황 속에서도 틈틈이 짬 내 집필과 편집 등의 작업을 했다.

계약실무편람은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공사계약 △제3장 물품계약 △제4장 용역계약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야별 업무 흐름도, 실무사례, 관련 서식, 질의응답을 수록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계약, 대금 지급까지 편람에 있는 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손쉽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총망라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계약실무편람이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길잡이로서 업무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담당자들을 적극 지원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G.U.I.D.E 사업단

학교컨설팅 강사연수 워크숍

전주교육대학교 주관 G.U.I.D.E 사업단이 지난 19~20일 광주 총장 라마다 호텔에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강사연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의 지속 가능 리더십, 교실 혁명을 위한 학부모의 이해, 교원의 교실 혁명 역량 이해 등 총 10가지로 진행됐다. 특히 현지 교사들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분석 설문은 기반으로 연수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모듈화 프로그램이다.

한편, 31일까지 G.U.I.D.E 사업단 코디네이터 및 강사를 모집 중이다. 또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 신청 학교를 접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석사과정생 2명, 'ICFPE 2024' 은상 수상

서민영·주현지 석사과정생

전북대학교 서민영·주현지 석사과정생(유연인쇄전자전문화학원 유연인쇄전자공학과, 지도교수 김태욱)이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제화학대회 'ICFPE 2024'에서 Materials 부문 우수 포스터 선정돼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민영 석사과정생은 구리 나노시트를 이용해 고효율 전자차와 차폐 필름을 제작하고, 산화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주현지 석사과정생은 비



정질 인돌갈륨비연산화물(이하 InGaZnO)을 반도체층으로 이용해 제작한 박막 트랜지스터에 2차원 단결정인 나노시트를 삽입해 소자의 문턱전압 특성 변화를 유도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전주국제드론박람회 참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사업 드론·영상·콘텐츠 산업 ICC는 '2024년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022년부터 공동 주관으로 드론·영상·콘텐츠 ICC 활동을 통해 배출된

성과를 전시,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에게 LINC 3.0 사업 및 드론·영상·콘텐츠 ICC 홍보 및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으로 드론축구 세계화, 드론레저·스포츠 산업분야 육성방안 등을 견학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